

“Korea in the Human Rights World”

일시 : 2015년 6월 24일

연사 :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

장소 : 연세대학교

총장님,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따뜻한 환영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는 뛰어난 공무원과 오피니언 리더, 기업가 등 우수한 졸업생을 대거 배출한 세계최고의 대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정훈 인권대사님 지도하에 국제대학원 휴먼리버티센터는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유엔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휴먼리버티센터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불안과 국제적 불안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과학/기술적 진보와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폭력과 잔인한 억압, 박탈과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지정학적 요인과 소수의 이익 추구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이는 평화와 개발, 인간의 삶과 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나은 글로벌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포용적이고 원칙 있는 비전을 구현하는 리더십. 방어적으로 자국의 정체성과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 곧 자국의 이익임을 아는 리더십. 경험을 중시하고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리더십. 인권을 중시하는 것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따뜻하며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길임을 아는 리더십. 또한 서로의 차이가 대화와 협력, 상호존중, 화해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아는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는 장대하며 그 업적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동시에, 많은 아픔 또한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한반도를 폐허로 만든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이며, 세계2차대전 종식과 함께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야말로 이런 아픔을 되새기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룬 것과 배운 것을 되돌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역사를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사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역사적 인식의 차이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상처를 방치할 때 그 상처는 깊어질 것이며, 상처 자체를 부인한다면 그 상처는 낫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단층선으로 자리 잡아 화합과 존중으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합니다. 또 일부 사건은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고 공식적 기록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그들의 권리와 존엄성마저 잊혀지기도 합니다. 특정 사회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국민들 간의 대립을 일으킬 수 있는 편견을 심어주고 이는 결국 차별과 극단적 민족주의,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저는 공명정대하게 과거의 아픔을 조사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극복하는 것이 그러한 아픔의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이야말로 한 사회가 전쟁이나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알려주는 척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의 니즈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깊은 불신이, 부분적으로 가려질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피어 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세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억압하는 폭력을 견디며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고문, 박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사건에 대한 선명했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고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며 기억이 흐려질지라도 고통은 그 자리에 남아 조그만 자극에도 되살아납니다. 기억도 따라서 되살아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은 온데간데 없고 되살아난 과거가 현재를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소위 위안부라고 불리는 세 분의 용감한 성노예 피해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전쟁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공식 성명이나 선언이 아닙니다. 그들을 피해자로 불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인정하는 모습과 진정 어린 참회입니다. 우리는 그들 곁에 조용히 함께 앉아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물어봐 주고, 가끔은 같이 미소 짓고, 그들의 손을 잡고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아시아는 과거에,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도, 박해와 잔인한 억압, 사회경제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침해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해야만 합니다.

리더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가장 소중한 자원을 얻습니다. 소수의 정치인들이 제도적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경제적 자원을 착취하고 그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때 사회불안정이 야기됩니다.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엘리트는 국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집요한 감시와 불신을 낳고 경제를 포함해 사회 모든 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특히 변화를 싫어하고 통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혁신을 위한 창의적 반대를 저해하게 됩니다.

언론의 독립성, 민주적 제도, 공평한 사법권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강력한 시민 사회 목소리는 사회의 안정성과 평화, 성숙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전쟁의 폐허와 참상을 딛고 일어나 민주주의 가치를 포용하며 오늘날의 번영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변화는 현대 사회의 가장 위대한 성공신화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인권의 여정을 보면 수십 년간 식민지배를 겪었고, 제2차 세대전의 잔인함과 한국전쟁의 참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여정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남북분단과 그로 인한 수십만 이산가족과 고통 받는 수백만 북한 주민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군사정지도 안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희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경제대국으로서 창의력과 혁신의 원천으로서, 한국은 세계를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강건한 민주/사법 기관과 교육에 대한 열정, 광범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함께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오랜 일원으로서, 그리고 최근 유엔안보리 일원으로서 한국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자매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위원회 전의장국으로서, 이주를 촉발시키는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유엔난민기구가 남수단 사무소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의 평화와 인권을 향한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유엔의 “인권에 관한 책임규명”이라는 개념을 국내차원에서 확장시킨 인상적인 이니셔티브를 구현했습니다. 그 중 “인권도시”라는 개념을 통해 지방정부와 국민들간 계약이 인권원칙이라는 측면에서 강화된 것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정부가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지지함으로써 이 이니셔티브를 전세계에 알린 것을 매우 인상 깊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의 유엔에 대한 기여도를 논할 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이 빠질 수 없습니다. 반 사무총장님께서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성소수자인권, 인권 Up Front 정책 등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보여 주시므로써, 이제 인권은 이제 반사무총장님 업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국제인권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펼치면서도 정작 지역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의 부재로 대등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2년 서울평화상 시상식에서 반사무총장님은 “동북아 국가들은 서로가 가장 중요한 교역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거에서 기인한 긴장감이 현재에도 여전히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통합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6살에 고향을 떠나 산비탈 피난길에서 고향마을이 불에 타는 것을 지켜보야 했던 반사무총장님의 현명한 조언일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교류가 날로 증가하는 이 지역에서 정치적 통합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역 협력을 위한 적절한 장치의 부재 시, 이 지역은 민족주의적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증오 발언으로 얼룩질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한반도를 특히나 더 옥죄고 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발전과 개발은 한국의 성공과 완전히 상반되는 북한이라는 그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사(NASA)가 찍은 북한의 어두운 밤 사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사람들은 물자부족으로 고통 받고, 속삭임 때문에 반역자의 낙인이 찍혀 처형 당합니다. 그들은 노예, 고문, 강제이주, 박해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지지에 힘입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조사덕분에 이러한 북한의 실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주민 인권상황을 간과하고 있던 국제사회는 작년 COI 보고서 발간 후 충격을 받았고 뜻을 모아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

회에서 강력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북한의 이러한 상황은 유엔안보리에서 북한핵무기 문제 이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유엔 회원국들은 전례 없이 확고한 목소리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존중 받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와 함께 일본을 포함한 이웃 국가 국민들의 납치에 관한 책임자 처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 한다면 강력한 억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실제로 국제인권시스템에 적극 참여 의지를 보이는 등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두 차례 정례인권 보고서에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two track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처음 제시한 이 방법은 북한에 대한 책임규명과 함께 북한의 변화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엔인권서울사무소는 이러한 희망과 결심을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감시와 보고, 교류의 탄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북한 인권개선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허브와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가혹한 고통을 오랜 시간 견뎌온, 그러나 정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피해자들의 편에 설 것입니다. 북한의 무차별 관행을 끝내기 위한 지역 주체들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책임규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 하고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인권침해의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부인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성마저 부인하는 것으로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정의를 통해 그들의 상처를 인정하고, 치료하고,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는 응어리와 미움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져 언젠가는 그 모습을 갑자기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